

'98 부산연극제

THE 16th PUSAN THEATRE FESTIVAL

98.7.10(금) ~ 7.29(수) 시민회관 소강당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특별후원: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부산경상대학 방송연예과, 부산예술학교 연극영화과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한국예총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PSB부산방송,

釜山日報 국제신문 부산매일

특별협찬: 주서진파이낸스

협찬: Coca-Cola J·B Club 프랜들리 아이스크림, 동방애드콤, 벅크디자인

본 공연은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됨 공연문의 : 645-3759



경연 부문
참가작품1

극 단 : 열린무대

해바라기

장정일/작 구현철/연출
98. 7. 12(일)~13(월)

연출의 변



연출 / 구현철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1

연극적 상상력은 어디에 있는가.

딱딱한 객석과 서먹서먹한 무대 사이
타자기에 끼워진 A4용지처럼 난타 당한다.

2

장정일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
대구에는 장정일이라는 소년이 산다-라는 기형도의 한 문장처럼
그의 작품속에서 세계의 낯선 속살을 훑쳐보게 되는 것은
그의 천진스런 영혼때문이다.

3

세기말의 현실은 여전히
거친 호흡과 신열을 앓는 악몽이다.
그것은 고도자본주의 사회의 조작된 문화적 중앙에서 비롯된다.

4

현실과 환상의 경계 지우기
그리하여 환멸의 시간들에 긴장된 무대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해바라기]는 신성이 타락한 세계에 대한 자기모멸과
그 속에서 치열하게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스스로의 몸달아함이다.

5

연습과 작업이 다 끝나가지만
여전히 지구와 함께 23.5도 기울어져 돌고 있다.
이 습관적 자전이야말로 신성이 사라진 세계의 고해갈다.

6

무대작업이 끝난 새벽
느닷없이 아침으로 전보 한통 띄운다.
병·세·이·상·없·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작품 줄거리

30대의 희곡작가 김인.
 그는 연극 제작자에게서 원치 않는 각색작업을 의뢰받아
 자괴감에 빠져 있고,
 여기자, 출판사 여직원, 소녀팬, 장녀, 차녀, 제작자, 삼녀어머니 등이
 그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들은 성적 타락에 이미 깊이 물들어 있으며
 [신성의 타락이 성적타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원죄의 원천으로서 김인과 관계하고 김인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김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유일한 인물은 삼녀인데
 그녀만이 순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삼녀의 희생은
 김인을 정신적 공황에서 구원하게 된다.
 김인이 쓴, 각색이 아닌 자신의 창작극[해바라기]는
 삼녀가 쓰고자 했던 [무지개]에 다름아니다.
 물론 그것은 현대의 극작가를 사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제작자 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냈던 김인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 김인은 신성의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세태 속의 희생자이자,
 모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화신이기도 한 여성성(모성)속에서
 신성의 회복을 일관되게 집착한 인물인 것이다.
 결국 김인은 고해성사하듯 말한다.
 '나는 저달의 아이, 달의 정부, 달의 죄수입니다'

CAST



김인/ 배진만



김인/ 유재명



제작자/ 안성혜



삼녀/ 염지선



여기자외 / 정화선



차녀외/ 김영림



가출소녀외/ 김수진



어머니외/ 김경화

STAFF



무대미술/ 김



제작/ 박지선

부산 소극

열린 소

창

명륜

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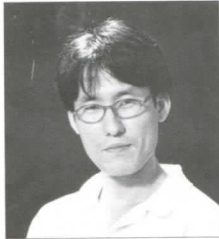
STAFF



무대미술/ 김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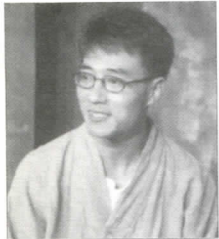
무대장치/ 서석현



음악/ 이세호



효과/ 윤현미



제작/ 박지산



무대감독/ 황성현

조명/ 박성영

의상/ 안지영

부산 소극장 안내

열린 소극장

창작극만을 무대에 올려온 극단 열린무대의
활동무대로 부산지역 극단에 한해서만
무대 대관을 허용하고 있다.
명륜동 지하철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주 소: 동래구 온천1동 473-8번지

전 화: 553-9475

개 관: 1989년 11월 11일

규 모: 무대 15평과 100석의 좌석을 갖춘 소극장

민족극터 신명천지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가 설립한
마당극 전문극장으로 원형및
가변무대가 특징이다.
극단자갈치의 활동무대로 신명나는 마당극과
부문협공연, 소규모 노래패 공연이 열린다.

주 소: 금정구 부곡동 333-3번지

전 화: 515-7314

개 관: 1990년 4월 1일

규 모: 원형무대와 객석100석의 소극장